

Eastside Christian School 한국어반 개설

- LA한국교육원이 3년간 최대 \$30,000 지원. 필드트립 및 교수 학습자료 지원
- 한국어·한국문화 맛보기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중·고등학생 정규 외국어 과정 두 트랙 운영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6월 24일 풀러튼 소재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찬 사립 초·중·고등학교(Eastside Christian School)와 한국어반 신설을 지원하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
-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스트사이드 사립학교 Sharon Yoo 교장과 이선민 교감, LA한국교육원 및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 (International Korean Educators Network)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학교 커리큘럼과 한국어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-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찬 스쿨은 1976년 설립되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생활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. 학생 전체의 60%가 한인 학생들이나 학교로, 한국의 뿌리를 교육하고 비한국계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
-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1회(50분) 입문과정(맛보기 수업)을 통해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고, 중·고등학생들은 정규 과목으로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.
- Sharon Yoo 교장은, “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한국어에 익숙하지만 실제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” 고 말하면서 “비한국계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고 흥미를 갖고 있어 한국어반 개설을 반기고 있다” 고 말했습니다.

- 강전훈 LA한국교육원 원장은, “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우리의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자신의 뿌리를 더욱 깊이 알고 주변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
붙임 : MOU체결식 사진 2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사진 1~2: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찬 스쿨 MOU 체결식에 참석한 LA한국교육원,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찬 스쿨, IKEN 관계자

